

일제강점기 잡지에 내재된 식민지 조선인식*

-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 朝鮮版)』과
재조일본인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

조경식**
happyset80@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재조일본인과 내선일체(內鮮一體) 인식 |
| 2. 『모던일본 조선판』의 출간배경 | 3.2 조선체험과 기생예찬 |
| 3. 『모던일본 조선판』에 내재된 조선인식 | 4. 마치며 |

主題語: 모던일본 조선판(Modern Japanese Joseon Version), 재조일본인(The Japanese residents in Joseon),
관광조선(Tourist Joseon), 내선일체(Naesoon Ilche), 모리타 요시오(Morita Yoshio)

1. 들어가며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된 세 도시, 부산·원산·인천을 통해 조선으로 도항하여 정착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들은 일본의 패전 무렵에는 그 숫자가 7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 식민지의 관리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업으로 크게 한 건 올리고 자 하는 소위, 히토하타구미(一旗組)라고 불리던 자들로서 조선에서의 일확천금을 꿈꾸며 도항한 이들이었다. 초기 재조일본인들의 단기적 체류의 성격상 이들의 문화생활을 뒷받침 할만한 콘텐츠의 개발은 미비하였으나, 경성에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일제의 식민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05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즉 식민지배의 침범이 될 언론계, 의료계, 종교계, 교원, 공무원 등의 전문직 인텔리 계층에 의해 조선 지역은 일상적인 생활공간화를 염두에 둔 장기 체류의 장소로서 변모하게 되고, 잡지, 신문 등의 출판물은 붐을 이루게 된다. 재조일본인들은 이와 같은 잡지나 신문을 통해 조선의 정보를 공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본국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의도하

* 본 논문은 중앙대학교에서 발표한 석사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첨삭하여 작성하였다.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였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본잡지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 朝鮮版)』은 1939년과 1940년에 임시 증간호로 발행 된 잡지인데, 이전까지의 잡지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잡지가 간행되기 직전에 일어난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영향으로 일본의 관심이 중국으로 옮겨가고, 내지(内地) 일본인들이 ‘초센코(朝鮮っ子)’¹⁾라는 차별적 언어로 재조일본인들을 구분 짓는 상황에서 속에서 『모던일본 조선판』에는 재조일본인들이 선전하고자 하는 조선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잡지를 구성하는 내용의 상당수가 재조일본인 출신 필자들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서 이와 같은 의도는 일정부분 확인되는 바이다.

총 7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모던일본 조선판』은 잡지 곳곳에 조선의 풍경과 조선 여인을 등장시키는 등의 시각적 측면과, 수필, 콩트, 좌담회, 견학기, 소설 등 다양한 카테고리 로 일본인 독자들에게 어필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잡지를 통해 담아내고자 의도한 것들이 내지의 일본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장차 어떤 장소로 만들어가고자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일본어 잡지²⁾의 문예란 연구가 이미 선행된바 있지만, 중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 말기의 인쇄물에 투영되는 재조일본인들의 욕망에 관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재조일본인들이 내지 일본인들을 향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서기재는 잡지 『관광조선(觀光朝鮮)』의 연구를 통해 밝힌바 있다. 『모던일본 조선판』과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잡지 『관광조선(觀光朝鮮)』을 연구한 서기재는 “기존의 관광정보의 성과를 뛰어넘는 조선에 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려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³⁾라고 밝히며 재조일본인의 욕망에 주목한 바 있다. 동시기에 출판되어 화제가 된 『모던일본 조선판』 역시 당대 일본인의 욕망이 투영된 텍스트로서 어떻게 조선을 포장하며, 선전하고자 했는지 살펴보겠다.

-
- 1) 기유정(2013)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 논의와 식민 2세 아이덴티티론-『綠旗(録人)』소재 글을 중심으로」 『월경(越境)의 기록-재조(在朝)일본인의 언어·문화·지역과 아이덴티티의 분화』 어문학사, p.213
 - 2) 『한반도(韓半島)』, 『조선의 실업(朝鮮之實業)』, 『조선공론(朝鮮公論)』과 이후 『조선 및 만주(朝鮮及滿州)』로 이름이 바뀌는 『조선(朝鮮)』 등의 잡지가 있음
 - 3) 서기재(2012) 「『관광조선(觀光朝鮮)』에 나타난 ‘재조일본인’의 표상-반도와 열도 일본인 사이의 거리」 『일본문화연구』 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340

2. 『모던일본 조선판』의 출간배경

『모던일본 조선판』의 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살펴 볼 부분은 재조일본인의 존재이다. 특히 조선에서 태어나 일본이 패전한 1945년 무렵까지 줄 곳 생활해 왔던 재조일본인 2세들은 스스로를 ‘반일본인·반조선인’⁴⁾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만큼 복잡한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내지 일본인들 또한 재조일본인 2세를 바라보며, “전통의식이 결여되고, 경박·나태한 생활을 하는 등 문화적 결함에 가장 잘 노출된 집단”으로 인식하였고, 재조일본인 2세들은 “스스로를 결여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한편으로 외지(조선)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확인하면서 ‘초센코(朝鮮っ子)’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⁵⁾ 그렇지만 재조일본인들의 이러한 체념적 내지 긍정적 태도는 어디까지나 내선일체의 주도적 입장에 근거한 형태로서 잡지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재조일본인 2세 출신의 사상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일본민족순혈론’, ‘본토중심론’ 등을 국체론의 주적(主敵)으로 인식하고, 재조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에 둔 내선일체론을 이론화하며 조선을 종속된 형태로 위치시키기도 하였다.⁶⁾ 위와 같이 재조일본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강점기 말기로 치닫는 중일전쟁 직후, 1939년에 『모던일본 조선판』이 간행된다. 이 잡지는 조선의 문학과 잡다한 이야기 거리가 함께 실리는 ‘종합문화잡지’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시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논설과 수필도 다수 실려 있었다. 잡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진1>과 같은 조선 여인을 곳곳에서 소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4) 이수열(2014)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경험-식민 2세 출신 작가들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50호,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p.100

5) 기유정(2013) 앞의 책, p.213

6) 기유정(2012) 「일본제국과 제국적 주체의 정체성-『綠旗』(『錄人』)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학』 제3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19-154



<사진1>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잡지 『관광조선(觀光朝鮮)』에서 이와 유사하게 자주 노출되는 조선 여인의 이미지에 대해 서기재는 ‘설명되는 대상이 아닌 보이는 대상 및 소유하는 대상’⁷⁾으로 분석한바 있다. 잡지의 주 독자층이 본국의 일본인 및 재조일본인 등의 식민 지배자였고, 중일전쟁 이후 고조되어가던 군국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내선일체를 추진하던 정치적 입장이 잡지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대외적 팽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일본은 안정적 물자 공급지로서 중요해진 조선과의 내선일체, 일시동인(一視同仁)을 강조하는 한편, 잡지 등을 통해 조선의 대외적 중요성과 관광지로서의 이점을 선전함으로써 조선경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동시에 조선에서 뿌리내리고 있던 재조일본인들은 (내지 일본인 관점에서의)외지인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당시의 정세에 부합하는 조선 관련 기사들을 『모던일본 조선판』과 같은 잡지에 게재하였다. 뒤에서는 『모던일본 조선판』의 기사를 통해 재조일본인들이 어떻게 조선을 경험하고 내면화했는지 살펴보겠다.

7) 서기재(2009)「근대 관광 잡지 『觀光朝鮮』의 탄생」『동아시아 문화연구』제46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61

3. 『모던일본 조선판』에 내재된 조선인식

『모던일본(モダン日本)』은 문예춘추사(文芸春秋社)가 1930년에 창간한 대중잡지였고, 『모던일본 조선판』은 임시증간호로 간행되어 현재 1939년, 1940년의 판본만 전해지고 있다. 잡지는 좌담회 및 정치·경제 논설, 소설, 수필, 시 등의 문학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재조일본인과 내선일체(内鮮一体) 인식

1939년판은 최초의 조선판이었던 만큼, 총독부 및 언론계 고위직 종사자에 해당하는 재조일본인들의 글이 눈에 띄게 게재되어 있다. 그중 당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와 경성일보사 부사장 미타라이 타쓰오(御手洗辰雄)의 글 중 일부를 살펴보겠다.

이번 지나사변(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전모(全貌)는 다시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케하며 전 국민의 눈앞에 드러났다. 비약하는 조선의 2천3백만 민중은 혼연일체가 되어 흥아(興亜) 국책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르러 ‘조선판’을 간행함은 시의에 적절한 것이고, 내선일체(内鮮一体)의 실익을 얻음에도 기여함이 많을 것이라 믿는다.⁸⁾

내선 양 민족은 이미 나뉘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선 양 민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 민족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로서 합작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중략)이 협동체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 것이다. 조선은 완전한 대 일본 국민을 생성(生成)하여 이 동양 협동체의 중심 초석이 될 운명에 있다. 현재의 작은 차별, 제각각 눈앞의 작은 이해 때문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공평함을 외치고 불만을 호소하는 자는 시간의 힘이라는 위대함을 모르는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자이다.⁹⁾

글에서 미나미 지로는 이번 조선판의 출간이 일본의 대륙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외지 조선의 총독으로서 국제정세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며, 조선의 지정학적 존재감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선 민중이 국책달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주 독자층에 해당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서의 내선일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판의 간행을 통해 내선일체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기대는, 잡지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한다.

8) 南次郎(1939)「朝鮮版へのことば」『モダン日本 朝鮮版』, p.72

9) 御手洗辰雄(1939)「内鮮一体論」『モダン日本 朝鮮版』, p.77

당시 조선은 강제 합병이후 30여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내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금강산과 기생 정도 밖에는 떠오르지 않는’¹⁰⁾ ‘외지’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외 팽창을 계기로 커져가는 조선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잡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의 글에서 미타라이 타쓰오(御手洗辰雄)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정신을 강조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듯하지만, 실상 조선인에서 일본인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전제로 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일본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글쓴이 역시 재조일본인의 입장에서 조선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초센가에리(朝鮮歸り), 만슈가에리(滿州歸り), 쇼쿠민치가에리(植民地歸り)’¹¹⁾ 등의 차별적 언어로 내지인들과 구분을 당하고 있었던 재조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조선에서의 지배적 위치는 곧 그들의 존재감에 대한 확인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타라이는 조선이 ‘동양 협력체의 중심 초석’이고, ‘내선은 하나의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덧붙여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의 중심이 됨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모던일본 조선판』의 기사는 앞에서 본 공직자들 외에도 다양한 배경의 필진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음악가, 대학교수, 소설가, 문학평론가 등이 조선을 소재로 다양한 전망의 글을 남기고 있다. 이중 당시 경성제대 교수였던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와 가라시마 다케시(幸島驍)가 각각 쓴 「조선의 인식(朝鮮の認識)」과 「내지인으로서(内地人として)」는 재조일본인으로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조선의 인식」에서 스즈키는 내지인들이 “어째서 홋카이도에 부임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조선에 건너 올 수 없는지 너무 이상할 따름”이라며, 그 이유로 내지인들에게 있어 “조선행이라고 하면 그다지 비장한 흥분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 같다”¹²⁾고 진단하지만, 곧 다음과 같은 전망을 통해 조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으로 건너가 사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인식 부족이고, 조선은 그들의 흥분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비외지화(非外地化)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중략) 조선을 다짜고짜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문제이고, 동아시아의 신질서 건설이 진행되는 이때에 유럽의 관념적이고, 구 질서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도쿄의 인텔리 계층이 오히려 어떤 감회나 흥분도 느끼지 않고, 홋카이도에 부임하는

10) 南次郎(1939)「朝鮮版へのことば」『モダン日本 朝鮮版』, p.72

11) 이수열(2014) 앞의 논문, p.113

12) 鈴木武雄(1939)「朝鮮の認識」『モダン日本 朝鮮版』, p.169

것과 같은 가벼운 기분으로 조선에 부임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¹³⁾

이 글이 쓰인 시점에 이미 70만여 명의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는 등, 식민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선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정복욕에 근거한 흥분을 일으키기 어려운 외지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반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중국은 대륙 진출이라는 염원이 투영된 지역으로서 내지 일본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연히 인적, 물적 자원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재조일본인들로서는 다시 조선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즈키는 이어서 “대륙의 각 민족을 비교해 보면, 조선민족만큼 정신적으로 내지인에 근접해 있는 쪽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 관계의 결과 “엔(円) 불력의 선구는 조선이고, 내선통화등가(内鮮通貨等価)의 관계는 러일전쟁 이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¹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의 조선지역이 일본인들에게 감정적 흥분을 자극하지는 못할지라도 물적,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남겨주고 있음을 스즈키는 강조하는데, 이는 식민지를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시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재조일본인들이 조선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강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을 새롭게 바라봄과 동시에, 앞의 글에서 확인되듯이 ‘다짜고짜 식민지라고 생각’하는 ‘구 질서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함을 스즈키는 밝히고 있다.

경성제대 교수직에 있었던 가라시마 다케시는 수필 「내지인으로서」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재조일본인과 조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다음 내용에서 그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관심은 언제나 조선인에 관한 문제와 동향이며, 이곳에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는 내지인(재조일본인)에 대한 생활적, 사상적인 관심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한탄스럽다.(중략) 풍속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뭔가 생활적 감개, 사색, 혹은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마찬가지로 이 풍토에서 자라난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 땅의 특이한 생활이 남겨준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된다.¹⁵⁾

13) 鈴木武雄(1939) 앞의 책, pp.169-170

14) 鈴木武雄(1939) 앞의 책, p.169

15) 辛島驥(1939) 「内地人として」 『モダン日本 朝鮮版』, pp.170-171

다양한 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당시 재조일본인들을 바라보는 내지인들의 시각에는 일정 부분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부를 쌓아 사회적 지위를 높이며 조선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가라시마는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에 관해 위의 내용과 같은 언급도 하고 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이들 2세대들은 1세대들의 성공을 등에 업은 나태한 문제아들로 여겨졌던 점을 고려해 볼 때,¹⁶⁾ 재조일본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지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재조일본인 2세들을 조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다시 바라보게끔 환기하며, 가라시마는 “부모와 자식 2대에 걸친 조선 생활의 감정은 이 땅의 문학 어딘가에 표현되지 않을 리가 없다”¹⁷⁾라며 내지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3.2 조선체험과 기생예찬

잡지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의 작가, 문학평론가들의 글도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조선의 일상적인 풍경을 디테일하게 비교적 가감 없이 소개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그중 작가 김래성(金來成)의 수필 「종로의 적중(鍾路의吊鐘)」 중 일부를 살펴보겠다.

한낮에도 이 종루 안은 어둑어둑한데, 주황색 격자문 사이로 안을 엿보면 바깥의 소란함과 반대로, 이 또한 웬지 기분 나쁠 정도로 텅 비어 쥘 죽은 듯 조용한 것이다. 명과 암, 소란과 정적의 교류점, 이런 곳에서 우리들은 언제나 어슴푸레하게 떠오르는 괴이한 영기(靈氣)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중략) 오히려 이 텅 비고 어두침침한 종루 안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섬뜩한 냄새와 웬지 요괴를 연상시키는 일종의 이상한 환영을 즐기는 요령을 알고 있다. 이 두께 1척에 이르는 거대한 종의 철판 안에는 묘령의 미인의 피와 살과 뼈가 뒤섞여 있다는 전설조차 있다고 한다.¹⁸⁾

잡지에 실린 수필 중에는 현대의 여행 잡지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현장성이 돋보이는 글이 확인되는데, 일본인이 보기에 이국적일 수 있는 조선의 정경을 위와 같이 실감나고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김래성의 「종로의 적중」은 잡지의 독자층이 재조일본인 뿐만 아니라 내지인들도 있음을 감안한 듯, 종로를 신주쿠 주변에 비교하며 빌딩숲 속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종루와 적중을 설명한다. 특히 위와 같이 적중의 외양을 괴기가 느껴지는 기이한 영물(靈

16) 기유정(2013) 앞의 책, p.213

17) 辛島驕(1939) 앞의 책, p.171

18) 金來成(1939) 「鍾路의吊鐘」 『モダン日本 朝鮮版』, pp.176-177

物)로 묘사하고, 여인의 피와 살과 뼈가 종의 철판에 섞여 있다는 전설을 인용함으로써 일본인 독자들의 색다른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경성은 이미 도쿄에 버금 갈 정도로 대도시화 되어 “홍분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비외지화(非外地化) 되어 있다”¹⁹⁾고도 여겨졌지만, 미스터리 소설풍의 서술로 조선에 대한 간접체험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잡지는 일관되게 조선의 정치와 기생에 관해 언급하는데, 특히 금강산 일대의 풍경과 기생에 대한 설명이 자주 반복된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재에 주목하여 편집한 결과로 보이는데, 먼저 하마모토 히로시(濱本浩)의 소설「여수(旅愁)」에서 조선을 방문한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남긴다.

부친의 옛 참전지가 아니라도 평양에는 가보고 싶다. 3천 년 고도의 땅, 대동강과 기생도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중략) “아름답군, 조선의 아가씨들은.” 나는 무의식중에 감탄했다. 복장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허리띠를 매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지 않는 그녀들의 나긋나긋 뺨은 몸매의 아름다움, 게다가 자연스러운 화장과 타고난 우아한 풍격은 비에 젖은 해당화나 황혼의 뒤 뜰에 어렴풋이 핀 배꽃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였다.²⁰⁾

잡지의 편집자가 “조선이라면 금강산과 기생 정도 외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남겼던 것처럼, 소설의 작가는 조선을 설명하는 소재로서 당시 조선 여성들의 복장, 자세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그 모습을 상당히 미화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당시 일확천금과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조선에 오고자 했던 이들은 주로 남성이었기 때문에, 조선 여성에 대한 성적 판타지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선을 어필 할 수 있던 수단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욕망은 가토 다케오(加藤武雄)의 소설 「평양(平壤)」에서 주인공 일행이 평양 기생들에게 고름과 비녀의 명칭을 묻고, “간소하고 조화로워 아름답다. 조선부인의 복장은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²¹⁾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남기며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의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앞의 소설들 외에도 저명한 화가 도고 세이지(東郷青児) 또한 조선의 기생을 예찬하는 단문을 잡지에 남기고 있다. 이 단문에서 도고가 묘사하는 조선 기생들의 모습은 극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더해 ‘박설중월(朴雪中月)’이라는 실존의 기생에게 남기는 답문 형식이라는 독특함을 보여준다. 당시 재조일본인들이 기생을 소재로 조선을 적극적으로

19) 鈴木武雄(1939) 앞의 책, p.169

20) 濱本浩(1939)「旅愁」『モダン日本 朝鮮版』, pp.41-42

21) 加藤武雄(1939)「平壤」『モダン日本 朝鮮版』, p.63

로 소개하며 내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은 도고의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 뛰어난 기생들이 가진 태도와 자태의 우아함을 통해서 조선 본래의 고고한 문화를 느끼고, 2천 년 전의 지극히 높은 차원의 예술을 느끼지만, (중략) 내지에서도 훨씬 이전에는 게이샤가 여성의 문화적 대표답게 여겨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기생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은 더욱 결이 곱고, 이지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중략) 내가 말한 기생의 본질적인 것을 자각해 주는 것이, 조선의 우수함을 내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할 따름입니다. 내지의 여행자는 조선에 와 먼저 기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지인에게 고려백자의 촉감을 느끼게 하고, 세계에서 비할 데가 없는 오랜 문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 자네들의 태도 하나로 가능하다고 저는 단언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²²⁾

도고는 심지어 ‘전혀 교양을 갖추지 않은 채, 아름다움을 꾸미고, 객석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무리’라고 지칭한 기생을 ‘저속한 작부(下等な酌婦)’에 비유하며 기생의 기준을 은연중에 밝히기도 한다. ‘저속한 작부’와는 대비되며, 상기의 글에서 언급하는 ‘조선의 우수함을 내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섬세하고 이지적인 기생이라는 틀 자체가 잡지를 읽는 일본인 독자들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잡지를 통해 그려지는 조선의 정치와 기생의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 일변도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중국으로 옮겨가던 내지의 관심을 다시 돌리고자 의도했던 잡지의 전체적인 방향과 일치되어 일관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모던일본 조선판』의 내용을 통해 잡지의 간행 주체들이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지를 향해 알려내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잡지는 기존 조선의 이미지에 새로운 활기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철저히 대상화된 조선의 이미지에 다름 아니었다. 특히 잡지 전반에 걸쳐 가장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조선의 정치와 기생에 관한 극찬에 가까운 표현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가진 조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잡지는 주 독자층인 ‘내지’의 일본인들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이입될 수

22) 東郷青児(1940)『朴雪中月へ』『モダン日本 朝鮮版』, p.176

있는, 이런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며, ‘외지’ 조선을 적극적으로 포장해 나간다. 잡지를 통해 전달되는 조선의 이미지는 다른 식민지에 비해 일본인이 살기 좋은 고도로 내선일체가 정착된 지역이자,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이며, 아름다운 환경과 기생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될 뿐이다. 이것은 조선인이 바라보는 조선은 생략된, 단지 내지를 향한 전시의 욕망이 만들어낸, 대상화된 ‘외지’ 조선과 다를 바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가치무라 히데키 지음, 홍종필 옮김(1999)『韓國史와 日本人』백산출판사
- 기유정(2012)『일본제국과 제국적 주체의 정체성-『綠旗』(『録人』) 속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국체론과 정체성 분석을 중심으로』『일본학』제35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119-154
- 과경 일본어 문학문화연구회(2015)『재조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의 문화2』역락
- 박광현 외(2013)『월경(越境)의 기록-재조(在朝)일본인의 언어·문화·기억과 아이덴티티의 문화』어문학사
- 서기재(2009)『근대 관광 잡지 『觀光朝鮮』의 탄생』『동아시아 문화연구』제46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pp.47-81
- _____(2011)『근대 관광 잡지 『관광조선』의 대중을 향한 메시지』『일어일문학』제52집, 대한일어일문학회, pp.337-352
- _____(2012)『『관광조선(觀光朝鮮)』에 나타난 ‘재조일본인’의 표상-반도와 열도 일본인 사이의 거리』『일본 문화연구』제4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339-358
- 이수열(2014)『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경험-식민 2세 출신 작가들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제5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99-121
- 이형석외(2013)『제국과 식민지의 주변인』보고사
- 정병호외(2014)『동아시아의 일본어잡지 유통과 식민지문학』역락
- 허 석(2012)『한말 한국이주 일본인과 문학』경인문화사
- 韓日比較文化研究センター 編(2007)『モダン日本 朝鮮版 1939』オークラ情報サービス
- _____(2009)『モダン日本 朝鮮版 1940』オークラ情報サービス
- 木村健二(1989)『在朝日本人の社会史』未来社
- 高吉禧(2001)『<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旗田巍と朝鮮・日本』桐書房
- 高崎宗司(2002)『植民地朝鮮の日本人』岩波新書
- 日本旅行協會朝鮮支部(1939)『觀光朝鮮』第1卷 第1-3號, 第2卷 第1-6號 국립중앙도서관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11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1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일제강점기 잡지에 내재된 식민지 조선인식

-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 朝鮮版)』과 재조일본인의 조선인식을 중심으로 -

조경식

조선에서 일본어 잡지 및 신문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이후였지만, 전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이 출판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에 의한 통감정치가 실시되는 1905년 이후 부터는 일본에서 건너온 인텔리 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조선이 강제 병합되는 1910년 이후부터, 『한반도(韓半島)』, 『조선공론(朝鮮公論)』, 『조선(朝鮮)』 등의 잡지를 통해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의 정보를 공유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지의 문화를 간접 체험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가게 된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발간된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 朝鮮版)』은 재조일본인들에 의해 철저히 대상화 된 조선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던일본 조선판』의 기사분석을 통해 재조일본인들이 어떻게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고, 내지 일본을 향해 어떻게 외지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잡지는 전형적인 대중 교양지의 외양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내선일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서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다. 신화를 주제로 한반도와 열도의 공동문화권 설정을 주장하기도 하고, 조선과 내지의 다른 도시를 동등하게 대하기를 촉구하며 내선일체의 정신을 강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정치와 기생에 관한 극찬을 통해, 당시 일본인들이 가진 조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잡지에서 소개하는 조선은 일본인 우위의 내선일체가 고도로 체화된 살기 좋은 지역이자, 일확천금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의 땅이며, 아름다운 환경과 기생이 존재하는 곳으로 표현될 뿐이다. 재조일본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잘 통제되어 정돈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며, 다가올 시대의 중추적 위치로서 설명된다. 『모던일본 조선판』의 바탕에는 재조일본인들의 이와 같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cognition of the Colonial Joseon in the Magazine
 of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Cho, Kyung-Sik

Japanese magazines and newspapers began to circulate in Joseon after 1876, when three major ports in Japan were opened. But, due to the unstable situation during the war, various kinds of magazines could not be published. However, since 1905, when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implemented in the Joseon Dynasty, intellectual class including civil servants and teachers from Japan felt the need to have their own means of exchanging information. Through major Japanese magazines such as 『Joseon』, 『Joseon Public Opinion』, Japanese in Joseon shared the information of the Joseon Dynasty, kept in contact with the culture of the Japanese mainland far away, and try to maintain their identity.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ourist Joseon』 and 『Modern Japanese Joseon Edition』 which were published at that time covered the contents similar to the above-mentioned magazines, while adding the perception of Joseon that the Japanese had in mind. These magazines were made up of contents of a new perspective on the image of the original Joseon, which was nothing more than an image of Joseon which was subjectively interpreted by Japanese living in Joseon. The magazine emphasiz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gnificance of Joseon at all times, praises its beauty, and emphasizes the Naeseon Ilche policy, which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Japanese in Joseon.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status of Japanese in Joseon, Joseon is portrayed as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coming era, depicted in a beautifully controlled, beautifully arranged image of their desires. In the background of 『Modern Japanese Joseon Version』, it is confirmed that Japanese in Joseon had such a desire.